

종교개혁의 전통과 교육개혁

교육개혁으로서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의의는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종교개혁은 신앙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 교육개혁이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세속적 학문을 하는 아카데미가 교회를 위협한다고 여겨 폐쇄하였고 대신 성직자의 양성과 귀족교육을 위한 대성당학교와 수도원학교를 두게 되었다. 이들 학교들은 대학교육의 기초가 되었지만 당시 교육은 성직자와 귀족의 자녀에게만 제공되어 일반대중을 위한 문해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에 무지하였고 교육은 교회를 봉사하고 종교적 생활에 들어가는 교양을 습득하고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교권확장의 수단이었다. 이러한 교육조차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여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의 사제들은 초대교회 이후 은밀히 교육을 받아온 초대교회후예의 어린이들보다 무지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고 이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었다. 따라서 일반성도들의 성경이해를 위해서는 고전어성경은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했고 개인은 모국어를 습득하여야 했다. 또한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함을 의미했다. 루터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의무에 대해 설교했고 시장과 의원들에게는 학교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세속적 정의와 질서를 관장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젊은이들의 교육을 가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루터가 생각한 교육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인생행로에 적용하여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미있게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종교개혁당시에 생겨난 1) 모국어 학교(Venacular primary school)에서는 읽고 쓰기, 성경, 체육, 유희음악, 가사 등이 2) Latin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에서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수사학, 법학, 변증법, 역사 등이 그리고 3) 대학에서는 전문직업훈련, 언어학, Aristoteles 저서 등이 강조되었다. 종교개혁을 위해 생긴 학교는 1) 개인적 성서연구 즉 성서를 읽고 배우기 위해서 뿐아니라 2) 올바른 사회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지적으로 깎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3)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었다. 루터는 하나님은 학교를 통하여 교회를 보존하신다고 말할 정도였다. 당시 교육개혁은 영성과 지성과 실용적인 교육까지 아우르는 교육을 탄생시켰고 인류사에서 근대식교육을 보편화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기독교와 교육개혁


우리나라 역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글성경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에서는 성경과 한글이 한자와 영어와 함께 가르쳐졌으며 예체능교육과 이과계통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오천석(1975)은 당시 기독교학교는 국어사용을 보편화하

고 서양신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양반과 서민 그리고 남녀를 차별없이 교육하여 계급사상을 철폐하고 평등사상을 확립하였고, 노동정신과 전인교육을 실천했으며 개인의 영달의 수단이었던 교육사상을 깨뜨리고 교육의 목적을 사회봉사에 두도록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매우 적은 수의 기독교인들은 교육구국과 계몽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미션스쿨과 교회 학교들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사회 교회들은 이신칭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성장을 위한 전도는 강조했지만 정작 성도들 각자가 제사장적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이신칭의의 기쁨을 가진 성도는 성경말씀을 먹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의 본과 제사장적 자기희생의 좁은 길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 종교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로마서는 이신칭의뿐 아니라 12장 이후에서 성도들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신칭의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뿐 아니라 죄에 반응하였던 옛 자아는 죽고 내주하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제 교회역사 130년이 되어가는 한국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신칭의의 열매를 삶에서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더욱 강하게 가르쳐야 한다.

탕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은 기독교학교교육에서도 드러난다. 대체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은 교육의 세속화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 기독교 학교는 일반교육과정에 성경과 예배시간을 더하는 식으로 교육하여 왔고 이러한 접근은 교육출세론과 같은 세속화에

학생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말았다. 기독교학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내용에 배어있는 물질주의와 교육출세론에 대해 무관심하며 단지 교세확장을 위한 전도의 채널로 학교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육내용은 중립적이지 않다. 철저히 그 시대의 철학, 사회학, 심리학에 기초한다. 현대의 학교 교육내용은 막시즘에 뿌리를 둔 비고츠키심리학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이 최신이론들의 흐름을 주관하고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과 여론을 형성하는 논거가 된다. 우리는 최근 교회에 도전하는 다양한 사회이슈들 즉 동성혼, 인권, 역사, 종교교육의 문제 등에 있어서 공적 논쟁의 자리에 적절한 논리와 용어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독교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각 전문분야의 이론과 제도에 배어있는 비기독교적인 현상들을 분별하며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독교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학교는 성경과 기독교철학이 학문의 기초를 이루도록 배치하여 가르쳐야 하고 각 학문과 과목들이 기반하는 세계관은 이를 근거로 검토되어 새롭게 가르쳐져야 한다. 교회학교는 더욱 철저히 기초적인 조직신학과 성경66권을 가르쳐서 성도각자가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을 주시는 생수를 기를 수 있도록 보다 수준높은 성경공부가 가르쳐져야 한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도 더 강하게 되어 순교를 하면서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종교개혁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늘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롬 8: 37) 



김정호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이며 한국초등교육학회장과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또한 이대 부속초등학교 교장과 기독교학문연구학회 교육분과장을 지낸 바 있다.